

제VIII부

부정(1) 시공부정

일본어 구조전달문법에서는 構造모델과 시공(時空)모델의 2종류의 모델을 설정하고 있다 ('머릿말' 참조) 이 제VIII부에 있어서는 부정을 시공모델로 다루며, 다음의 제IX부에서 부정을 구조모델로 다룬다.

제22장에서는 「부정」이란 「말이 나타내는 개념에 의해서 채워져야 할 시간과 공간이 비어있음의 인식」이라고 받아들여, 이것을 도시한다.

제23장에서는 부정의 시간적 측면을 도시하여, 「하는(하고 있다)」의 부정에 「していない(하지 않는다)」와 「しないでいる(하지 않고 있다)」의 2형식이 있는 것을 인식한다.

제24장에서는 일견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일본어 否定형식이 생략(省力化)에 의해 생긴 것임을 받아들여, 그 배후에 논리성이 일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제25장에서는 「ご飯食べた?(밥 먹었어?)」에의 부정 회답의 모습에 대하여 생각한다.

제22장

부정은 時空을 비운다

22.1 「ある」와 「ない」

인간은 존재하는 물체를 볼 수 있다. 눈 앞에 상자라고 하는 물체가 존재한다면, 그 상자를 볼 수 있다. 만약, 그 상자를 그곳에서 치워버린다면, 그 상자를 볼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이 상자를 그곳에서 치워버렸을 때, 그 상자가 점유하고 있던 「공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상자가 없어지는 것에 맞게, 그곳에서 그 공간도 없어지는 것일까. 아니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 공간 자체는 의연하게 그곳에 있다.

인간에게는 그 공간, 그것을 없애버릴 힘은 없다. 인간의 인식으로부터 공간의 감각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칸트는 「공간이라고 하는 순수직관(純粹直觀)은 감각기관이나 감각 등의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심의식(心意識)에 있어서의 단순한 감성적 형식으로서 선천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⁵⁶⁾)

인간은, 어떤 물체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을 때에는, 그 물체를 본다. 그 물체가 거기에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그 물체 대신에 그 물체가 점유하고 있던 공간을 직관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ない(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된다. 즉, 「ある(있다)」로 점유되어야 할 공간이, 「ない(없다)」에서는 점유자 없이 빈 공간인 채로 직관되는 것이다. 「箱がない(상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箱がある(상자가 있다)」의 경우에 상자에 의해 점유되어야 하는 공간이, 빈 공간인 채로 직관되는 것이다.

인간의 지각시스템으로부터 보면, 「箱がある(상자가 있다)」에서는, 상자가 점유해야 할 공간이 상자에 의해 채워졌으나, 「箱がない(상자가 없다)」에서는, 그 공간은 비어있다.

이 것을 図22-1, 2와 같이 도시하자. 그럼에서는, 채워져 있는 공간을 실선으로 나타내고, 비어있는 공간을 점선으로 나타낸다.



図22-1 箱がある



図22-2 箱がない

22.2 공간에 있어서의 「긍정」과 「부정」

「ある」는 긍정, 「ない」는 부정이다. 그래서, 긍정과 부정에 관하여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 「箱がある(상자가 있다)」라고 하는 「긍정」은, 「箱(상자)」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내는 물체가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는 것으로서의 인식이고, 「箱がない(상자가 없다)」라고 하는 「부정」은, 「箱(상자)」라고 하는 개념이 가리키는 물체가 일정의 공간을 점유하지 않는 것의 인식이다. 즉, 「긍정」에서는, 개념에 의해 설정된 공간이 채워지고, 「부

56) Immanuel Kant, 「순수이성비판」(上) [I 선형적원리론] 의 [제일부문 선형적감성론] p.87참조

정」에서는, 그 공간이 비게 된다. (図22-1, 2 참조)

22.3 「공간」과 「시간」

지금, 여기에 하얀 상자가 놓여 있다고 하자. 다음으로, 이 하얀 상자를 치워버리고, 이번엔 그 대신에 형태도 모양도 똑같은 붉은 상자를 놓는다고 하자. 이 때 인간은 같은 장소에 먼저 하얀 상자가 있었고, 다음에 이것이 붉은 상자로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한다. 인간은 하얀 상자가 놓인 것과, 붉은 상자가 놓인 것의 두 개의 사태발생의 관계를 시간적인 선후의 관계 속에서 받아들인다. 똑같은 장소에서는, 어떤 사태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다른 사태가 일어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똑같은 공간이어도 거기서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사태를 시간 속에 두고 인식한다.

이 시간의 감각을 인간으로부터 제거할 수는 없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얀 상자와 붉은 상자가 동시에 같은 공간을 점유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나카(田中)씨라고 하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같은 공간을, 가와카미(川上)씨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동시에 점유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한 쪽의 발생이 먼저이고, 다른 쪽의 발생이 나중이다.

이와 같이 동일의 공간이라도, 인간에 있어서는 그 공간은 시간을 동반하기 때문에, 공간은 순간순간 새로운 공간이 된다. (칸트는 「현상을 시간으로부터 제거하는 것은 특별히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현상 일반에 대하여 시간 그 자체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공간」과 마찬가지로 「시간」도 「선천적으로 부여 되어있다」「感性的直感의 순수형식이다」라고 하고 있다.⁵⁷⁾)

인간의 인식에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두 개의 직관의 형식이 선천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며, 현실의 물체나 사태는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제약 하에 인간에게 지각되는 것이다. 언어는 당연히 이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된다.

22.4 시간에 있어서의 「긍정」과 「부정」

「川上さんØ1本を読む(가와카미씨 책을 읽다)⁵⁸⁾」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이 이벤트는 물론 공간 속에서 생기는 것이지만, 동시에 시간 속에서도 생긴다.

공간 속에서의 발생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책을 읽는 행위를 하는 가와카미씨가 일정의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図22-1 참조) 부정의 경우 (「川上さんØ1本を読まない」)는, 책을 읽는 동작을 하는 가와카미씨가 일정의 공간을 점유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 할 수 있다. (図22-2 참조)

시간이라고 하는 형식에 있어서의 긍정과 부정도 이것에 준하는 것이 된다.

「川上さんØ1本を読む(가와카미씨 책을 읽다)」라고 하는 동작이, 예를 들면 미래인 오늘 밤 8시부터 9시까지의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동작이라고 한다면, 가와카미 씨의 시간의 흐름속에 그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読む(읽다)」라고 하는 동작에 의해서 점유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図22-3와 같이 도시할 수 있다.

이것을 부정해서 「川上さんØ1本を読まない」로 하면, 그 시간은 「読む(읽다)」라는 동작에 관해서는 空(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図22-4과 같이 도시 가능하다.

(시간의 경우의 도시에 있어서도 공간의 경우의 도시를 참고로, 동작 등의 이벤트에 의해

57) Immanuel Kant, 『순수이성비판』(上) [I 선험적원리론] 의 [제일부문 선험적감성론] pp.97-98 참조

58) 「川上さんØ1本を読む」에서 사용되고 있는 「Ø1」는 「제로1」 주격사(2. 2) 참조.

채워진 시간은 실선으로, 비어있는 시간은 점선으로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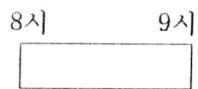


図22-3 本を読む



図22-4 本を読まない

「本を読む(책을 읽다)」라고 하는 「긍정」은, 「読む(읽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내는 동작이 일정의 시간을 점유하는 것으로서의 인식으로, 「本を読まない(책을 읽지 않다)」라고 하는 「부정」은, 「読む(읽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내는 행위가 일정의 시간을 점유하지 않는 것의 인식이다. 즉, 시간에서의 인식에 있어서는, 공간에서의 인식과 비슷하게, 「긍정」에서는, 개념에 의해 설정된 시간이 채워지고, 「부정」에서는, 그 시간이 비어 있다. (図22-3, 4 참조)

22.5 판단의 공간적측면과 시간적측면

모든 이벤트는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제약 하에 인간에게 지각되는 것이므로, 인간의 판단에는 공간적 측면과 시간적 측면이 있게 된다.

「川上さん**の**本を読む(가와카미씨 책을 읽다)」라고 하는 판단에 있어서는, 가와카미씨가 「読む(읽다)」라고 하는 동작을 하면서 공간을 점유하고, 동시에 시간을 점유하고 있다.

그리면, 판단 속에 공간적 측면과 시간적 측면은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우선 공간적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 가와카미씨가 지금 책을 읽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위치 관계에 의해 형태가 바뀌는 것인가. 예를 들면, 카와카미씨가 책을 읽고 있는 현장(카와카미씨의 바로 옆)에서 판단하는 경우와, 옆방에서 판단하는 경우와, 혹은 10km떨어진 곳에서 판단하는 경우는 말하는 방식이 바뀔 것인가. 아니다. 변하지는 않는다. 어디에서 판단해도 「川上さん**の**本を読んでいる」라는 형태가 된다. 판단의 형식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즉, 공간의 어떤 위치에서의 판단이라도, 판단의 형태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부정에 관해서도 특별히 변화는 없고, 단지 그 공간을 비우는 것만으로 족한 것이다.

그러나, 시간적 측면에서는 사정이 달라진다. 판단시에 이미 종료되어 있는 동작이라면 「読んだ(읽었다)」라는 판단이 되고, 판단 이후에 이루어지는 동작이라면 「読む(읽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된다. 또, 동작 중을 취한 것이라면 「読んでいい-(읽고 있-)」라는 판단이 된다. 즉, 동작에 대해서의 시간의 어느 위치에서의 판단인가, 동작의 어느 국면을 취한 판단인가에 의해, 판단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도, 시간의 어느 위치에서 어느 국면을 부정하는 것인가에 의해, 판단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다.

다음 제23장에서 부정의 시간적 측면에 대해 생각해 보자.

시제와 상(相)의 관계는 두 자리수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는가? → p. 119

「ある」와 「いる」는 무엇이 다른가? → p. 124

「象は鼻が長い」라는 문장은, 주어가 두 개 있는가? → p. 134

「私は故郷がなつかしい」라는 문장은, 주어가 두 개 있는가? → p. 145

「彼女が好きな彼」라는 문장은, 어느 쪽이 어느 쪽을 좋아하는 것인가? → p. 146

「ボクはお金がいる」라는 문장은, 주어가 두 개 있는가? → p. 147

「私は水が飲みたい」라는 문장은, 주어가 두 개 있는가? → p. 148

「飲んだ?」 과거인데 왜 「いや, 飲まない」인가? → p. 161

「もう食べた?」「いや, 食べなかつた」는 왜 이상한가? → p. 164

주어의 부정은 6종류로 구별할 수 있는가? → p. 171

제23장

부정의 시간적 측면

23.1 부정, 그림에서는 점선으로, 숫자에서는 마이너스(-)로

제17장의 図17-1의 이벤트는 실선으로 그려져 있으므로 긍정의 그림이다. 부정의 그림은 점선으로 그릴 필요가 있으므로(22. 4), 図23-1과 같이 나타낼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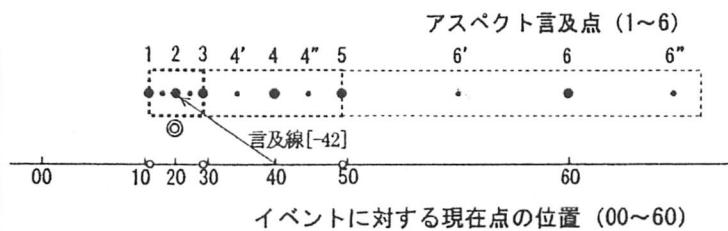


図23-1 現在点と言及点の位置関係(否定)

부정의 경우도 시간적 관계를 숫자로 나타내게 된다. 단지, 긍정의 경우와 구별하기 위해, 부정의 경우에는 -를 붙이기로 한다(-가 있으면 점선도시, 없으면 실선도시가 된다).

◎은 국면(局面)이 아니라, 이벤트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しない」를 나타내게 된다.

몇 가지의 언급선(言及線)을 예시 해보자.

[−0◎] (明日は本を) 読まない。

(내일은 책을) 읽지 않는다.

[−02] (明日の午後は本を) 読んでいない。

(내일 오후에는 책을) 읽고 있지 않다.

[−04] (午後は着物を) 着ていない。

(오후에는 기모노를) 입고 있지 않다.

[−06] (来週ではまだ着物を) 着ていない。

(다음주에는 아직 기모노를) 입고 있지 않다.

[−11] (今から着物を) 着ない。

(지금부터 기모노를) 입지 않는다.

[−22] (今は本を) 読んでいない。

(지금은 책을) 읽고 있지 않다.

[−33] (今まで本を) 読んでいなかった。

(지금까지 책을) 읽고 있지 않았다.

[−4◎] (さっきは着物を) 着なかつた。

(아까는 기모노를) 입지 않았다.

[−42] (さっきは本を) 読んでいなかった。

(아까는 책을) 읽고 있지 않았다.

- [−44] (今は着物を)着ていない。
 (지금은 기모노를) 입고 있지 않다.
- [−55] (今まで着物を)着ていなかった。
 (지금까지 기모노를) 입고 있지 않았다.
- [−62] (田中さんが来たときは、本を)読んでいなかった。
 (다나카씨가 왔을 때는, 책을) 읽고 있지 않았다.
- [−6○] (きのうは本を)読まなかつた。
 (어제는 책을) 읽지 않았다.
- [−64] (田中に会ったときは、着物を)着ていなかつた。
 (다나카씨를 만났을 때는, 기모노를) 입고 있지 않았다.
- [−66] (田中さんは、去年はハワイへ)行っていない。
 (다나카씨는, 작년에는 하와이에) 가 있지 않다.

부정의 경우에는, 현재점 30이나 50(실행되었다면 완료되었을 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32]는 [−42]나 [62]와 똑같이 되고, [−54]는 [−64]와 똑같이 된다.

- [−32] (さっきは本を)読んでいなかつた。
 (아까는 책을) 읽고 있지 않았다.
- [−54] (田中に会ったときは着物を)着ていなかつた。
 (다나카씨를 만났을 때는 기모노를) 입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점 30이나 50을 의도적으로 현재로 하고, 언급점 3과 5에 각각 언급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위의 예에서 [−33]와 [−55]가 그것이다.

23.2 같은動詞라도, 그림은 긍정과 부정으로 독립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는 것 같은 판단문도 있다.

「1時から2時まで本を読んでいた〔62〕が、2時半には読んでいなかつた〔−62〕。」

(1시부터 2시까지 책을 읽고 있었지만〔62〕, 2시반에는 읽고 있지 않았다〔−62〕。)

이런 경우의 도시(図示)는 図23-2와 같이 된다. 「読む」라는 동사는 같아도, 긍정과 부정에서는 그림은 따로따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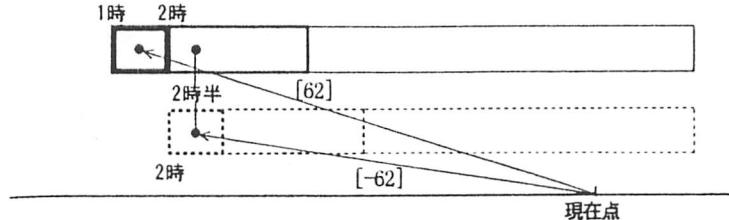


図23-2 同一動詞でも、1時から2時までは肯定、2時半は否定

그런데, 図23-2에 의해, 2시반이라는 언급점에서는, 「読んでいなかつた〔−62〕」라는 부정이 성립되는 한편, 「読んでいた〔64〕」라는 긍정이 성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일견 모순되는 표현도 가능함을 이해할 수 있다.

「2時半に突然、試験をするから入室するようにいわれた。そのときには読んでいなかつた〔−62〕が、もう読んでいた〔64〕ので、いつテストをされても大丈夫だった。」(2시반에 돌연, 시험을 보니까 입실하라는 말을 들었다. 그 때는 읽고 있지 않았지만〔−62〕, 이미 읽어 있었

기 때문에[64], 언제 시험을 보아도 괜찮았다.)

이렇게, 2시반에는 「読んでいる」와 「読んでいない」의, 일견 상반되는 판단이 양립하고 있다. 이것은 긍정과 부정의 「読む」를 별개로 취급해야 비로소 설명에 이를 수 있다. 같은 동사라도, 긍정과 부정과에서는 그림은 따로따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3.3 「している」의 부정은 두 가지

「している」의 부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예를들면, 「読んでいる」의 부정은 「読んでいない」와 「読まないでいる」 두 가지이다.

이 두 가지의 부정을 구별하기 위해, 「読んでいない」 형태의 부정을 「していない否定」, 「読まないでいる」 형태의 부정을 「しないでいる否定」이라 부르기로 하자.

형식적으로는, 「していない否定」(読んでいない)은 전체(読んでいる)를 부정하고, 「しないでいる否定」(読まないでいる)은 동사(読む)를 부정하고 나서 「ている」를 붙이고 있다.

이것에 관해, 다음 ①, ②를 지적해 두고 싶다.

① 「가상 개시전 부정(仮想開始前否定)」과 「가상 개시후 부정(仮想開始後否定)」의 대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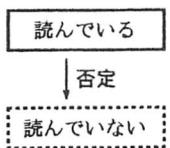


图23-3 しないでいる否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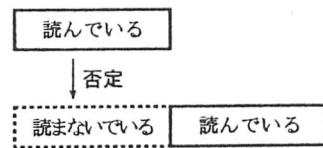


图23-4 しないでいる否定

양자(两者)의 차이점은 図23-3, 4와 같이 도시 가능하다. 「していない否定」이 「読んでいる」를 그대로 비우는 것에 대해, 「しないでいる否定」은 「読んでいる」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우는 것 뿐만아니라, 「読んでいる」를 뒤로 보낸다.

즉, 이 양자는 부정하는 국면이 다르다. 「していない否定」이 개시된 것으로 가상된 이벤트 각각의 국면을 부정하는(图23-1 참조) 것에 대해, 「しないでいる否定」은 국면이 이벤트 개시에 도달해 있지 않다(읽는 것을 시작하는데 도달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표명하는 형태로 이벤트를 부정한다.

기본적으로 「していない否定」이 이벤트 가상 개시 「후」의 부정인 것에 대해, 「しないでいる否定」이 이벤트 가상 개시 「전」의 부정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도 이벤트는 발생해 있지 않다.

그래서, 图23-1에 图23-3, 4를 가미해, 图23-5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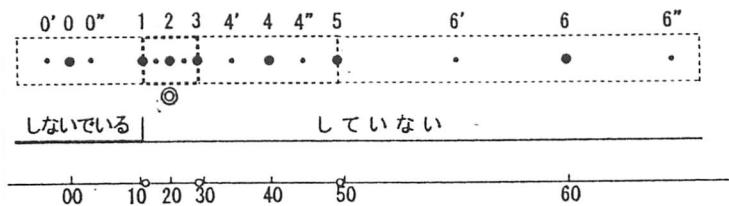


图23-5 「しないでいる」对「していない」

여기에서 상(相) 언급점 0이 부가되게 된다. 언급점 0은 이벤트 개시전 국면에 있다.

「しないでいる否定」은 기본적으로는 [-00]과 [-60]의 언급선을 가지고 있다. ([-66]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의 ②를 참조) [-00]이라면, 「読まないでいる」이고, [-60]이라면, 「読まないでいた」가 된다.

그런데, 다음 예와 같이, 어떤 동일 상황을 「していない否定」과 「しないでいる否定」 양쪽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00] 대 [-22]

[-00] 今は見るべき番組もないので、テレビを見ないでいる。

(지금은 봐야 할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있다.)

[-22] 今は見るべき番組もないので、テレビを見ていらない。

(지금은 봐야 할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보고 있지 않다.)

[-00] 대 [-44]

[-00] 友人と一緒に見ようと思っているので、その映画は見ないでいる。

(친구와 함께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영화는 보지 않고 있다.)

[-44] 友人と一緒に見ようと思っているので、その映画は見ていない。

(친구와 함께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영화는 보지 않았다.)

후자의 [-00] 대 [-44]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図23-6과 같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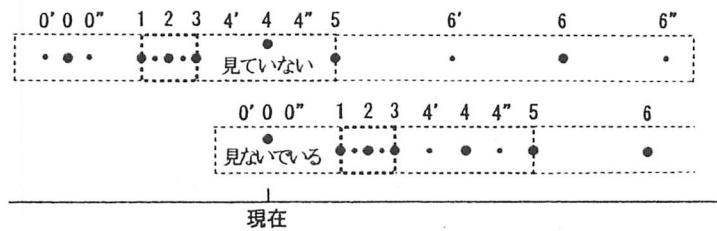


図23-6 [-00]見ないでいる 대 [-44]見ていない

「しないでいる否定」과 「していない否定」의 어느 쪽이나 가능한 경우는, 어떤 국면을 부정하는 형태로 표현하려는가 하는, 화자의 의도의 소재가 그 선택을 결정한다. 뉘앙스로는, 전자의 경우 「非実行에의 의지」가, 후자의 경우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일어났다고 예상되는 이벤트가 실제로는 아직 일어나 있지 않다는 기분」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② 「しないでいる」에도 「결과이벤트<기억>」이 있다.

[-66] 대 [-66]도 있다.

[-66] 祖母は当時、その少年の手記を読まないでいる。

(할머니는 당시, 그 소년의 수기를 읽지 않았다.)

[-66] 祖母は当時、その少年の手記を読んでいない。

(할머니는 당시, 그 소년의 수기를 읽지 않았다.)

그러나, 図23-5에서는, 「しないでいる否定」의 [-66]의 존재를 읽어낼 수 없다. 図23-5에는 아직 부족함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しないでいる否定」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読まないでいる」는 형식상에서 보면, 「読む」에 대해서는 부정이지만, 「読まない」에 대해서는 긍정이다. 긍정이라고는 해도 진짜 긍정이 아니라, 「외양상 긍정」이다. 그러나,

아무리 외양상 궁정이라고 해도, 단위이벤트가 될 수 있는 법이다. 제13장, 図13-2의 상(相) 원칙도에 맞춰서 생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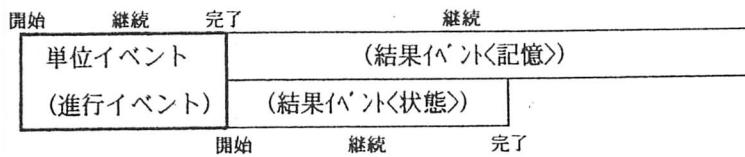


図23-7 アスペクト原則図(この原則図の中の諸イベントは、単位イベン
ト以外は「～ている」の形で表される。)

지금, 유사적(類似的)이기는 해도, 「단위이벤트」에 해당하는 것은 「読まない」이다. 「진행이벤트」에 해당하는 것은 「読まないでいる」이다. 특별히 문제는 없다. 「결과이벤트<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読まないでいる」이다. 이것은 위의 예와 같이, 또 다음 예와 같이 성립한다.

[–66] 父は学生時代には中国語を勉強しないでいる。

(아버지는 학생시절에는 중국어를 공부하지 않았다.)

이상, 단위·진행·결과<기억>의 세 이벤트는, 유사단위이벤트 「読まない」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결과이벤트<상태>」는 어떨까.

「결과이벤트<상태>」라는 것은 단위이벤트 완료의 결과로 생기는 상태이다. 「입다(着る)」의 경우, 「입는(着る)」 행위가 완료된 「입고 있다(着ている)」라는 착의(着衣) 상태이다. 「읽다(読む)」의 경우, 「읽은(読んだ)」 것에 의해 지식이 머리 속에 들어간 「읽었다(読んでいる)」라는 상태이다.

그리면 「읽지 않는(読まない)」 것이 완료됨으로써, 「読まないでいる」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발생하는 것인가. 이벤트가 「없는(ない)」 상태에서 어떤 상태가 발생한다는 것은 대단히 생각하기 어렵다. (애당초, 「읽지 않는(読まない)」 것이 완료된다는 것은 「읽다(読む)」라는 이벤트가 개시된다는 것이다.) 설명 어떤 「읽고 있지 않은(読んでいない)」 상태가 발생했다고 해도, 그것은 진행이벤트의 「読んでいない」와 구분이 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것은 외양상 궁정의 한계이다. 외양상 궁정에서는 「결과이벤트<상태>」가 성립하기 어렵다.

그래서 외양상 궁정은, 「결과이벤트<상태>」 부분을 빼고, 図23-8과 같이 그리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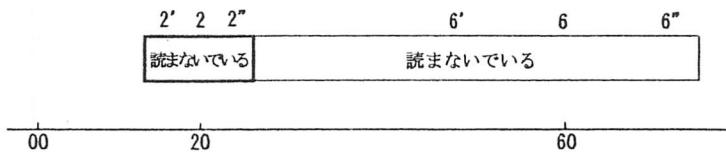


図23-8 見かけの肯定「読まないでいる」

「외양상 궁정」은 보조적인 생각 방식이고, 「しないでいる否定」은 어디까지나 부정이다. 그러나, 이 「외양상 궁정」이라는 생각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결과이벤트<기억>」의

성립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図23-5를 図23-9와 같이 보정하기로 한다. ()에 넣어 「しないでいる」를 보충하는 것이다. 이것은 [-66] 「결과이벤트<기억>」의 가능성을 그림상에 나타내는 것이다. 이 図23-9를 부정의 기준도(基準図)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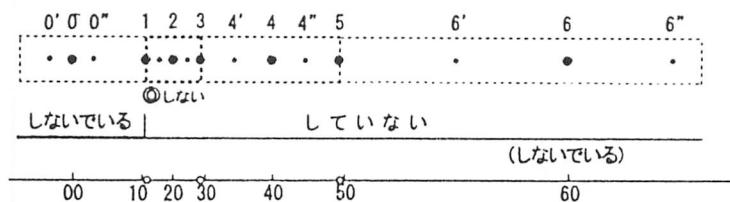


図23-9 否定の基準図

이 図23-9를 얻음으로써 인식의 시간적 측면을 부정할 때의 시공모델(「머릿말」참조)을 얻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일견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시간표현이 실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이 모델에 기초해서 나타내 보이고 싶다.

학교문법 품사와의 대비

학교문법(표충문법)에서 설정하고 있는 범주를, 구조전달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룬다.

동사 → 동사

형용사 → 형용사(「형용실사(形容實詞)」 + 「.k-」)

형용동사 → 實詞+「に」, 실사+断定基

명사 → 실사

부사 → 실사(「と・に・∅」격에 놓여지는 것), 그 외

연체사 → 실사+단정기, 그 외

접속사 → 接続基(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음)

감동사 → 全體描寫詞

조동사 → 조동사(세 가지 뿐), 태사(態詞), 否定詞, 단정기, 그 외

조사 → 격사(格詞), 상대화묘사사(相對化描寫詞), 실체간묘사사(實體間描寫詞), 그 외

제24장

과거·현재지향의 미래형

24.1 과거·현재지향의 미래형 「しない」「しません」

「しない」·「しません」은 「する」·「します」의 부정이다. 「する」·「します」는 미래를 나타내는 형식이기 때문에, 「しない」·「しません」도 미래를 나타내는 형식이 되어야 될 것이다.

あした、私はお酒を飲まない/飲みません。

(내일, 나는 술을 먹지 않는다/먹지 않습니다.)

확실히 미래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과거나 현재에는 사용할 수 없다.

*きのう、私はお酒を飲まない/飲みません。 (문맥이 없으면 틀린 문장)

今、私はお酒を飲まない/飲みません。 (지금, 나는 술을 먹지 않는다/먹지 않습니다.)

(「지금(今)」이라고 해도, 현재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문장이 된다.)

그러나, 다음 24.2, 3과 같이 「しない」·「しません」가 과거나 현재를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어떤 것인가. 본문법에서는, 이것을 생략화(省力化)에 의해 생긴 형식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24.2 「しないでいる/いた」가 생략에 의해 「しない」로

「きのう、お酒飲んだ?(어제 술 마셨어?)」라는 과거이벤트에 관련된 질문에의 부정대답은 「いや、飲まなかつた。(아니, 먹지 않았어.)」가 가장 표준적일 것이다. 그러나, 일견 현재처럼 보이는

[A] 「いや、飲んで(い)ない。」

나, 일견 미래처럼 보이는

[B] 「いや、飲まない。」

의 형태도 가능하다. 이것은 왜일까.

일본어에 [66]이라는 언급관계가 있음은 이미 지적한 대로이다(17.2, 3). 이것은 과거이벤트를 현재에 관련지어 「している」의 형태로 표현하는 언급관계이다. 일본어에서는 이 [66]을 사용함으로써, 과거와 관련된 질문에 「している」의 형태로 대답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 있다.

[6⑦] きのうお酒飲んだ? → [66] うん、飲んで(い)る。

[62] きのうお酒飲んで(い)た? → [66] うん、飲んで(い)る。

[64] きのう着物着て(い)た? → [66] うん、着て(い)る。

위의 예는 궁정으로 대답하는 경우이다. 부정의 대답[-66]은 23.3에서 본 것과 같이 「していない否定」과 「しないでいる否定」의 두 가지 가능성 있다.

[6⑦] きのうお酒飲んだ? ([62][64]는 생략하지만, 똑같이 다름.)

[-66] いや、飲んで(い)ない。 (していない否定)

[−66] いや、飲まないでいる。 (しないでいる否定)

이 중 「していない否定」은 다름아닌 [A]이고, 일견 현재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66]이고, 「마시는(飲む)」 행위자체는 과거의 것이다. [A]는 [−66]임을 나타내면 설명할 수 있다. 또, 이것이 그대로 높임말이 되면, 또 다른, 일견 현재로 보이는 과거지향의 형태 「いえ、飲んで(い)ません。」이 생긴다.

한편, 「しないでいる否定」은, 보통은 생략하기 쉬운 「でいる」를 생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66] いや、飲まない(でいる)。 (しないでいる否定)

여기에서 생기는 일견 미래처럼 보이는 형식이 바로 [B]이다.

또, 이 [B]의 형태는,しないでいる否定[−60]의 생략으로서 생긴 형태일 수도 있다.

[−60] いや、飲まない(でいた)。 (しないでいる否定)

어느 것이든, 이 「飲まない」가 생략에 의해 생긴 것이고, 원래 이 형태만으로 과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문맥에서 독립한 다음과 같은 문장이 틀린 문장이 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私はきのうお酒を飲まない。

*彼女はおととい着物を着ない。

이미 질문 중에 언급관계가 나타나 있고, 회답의 경우 그것을 기준으로 한 언급관계에서 대답하고 있는 것이 명료하므로,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생략해도 상관없고, 그 편이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

「しないでいる否定」은, [−66]이나 [−60]인 것이 명료할 때는, 생략하기 쉬운 「でいる」, 「でいた」가 생략되어 「しない」만 남는다. 여기에서 일견 미래처럼 보이는 과거지향의 형태가 생기는 것이다.

[6◎] ハワイへ行った?

[−66] いや、行かない(でいる)。

[−60] いや、行かない(でいた)。

[B]는 이상과 같이 생각함으로써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또, 「しないでいる否定」은 [−00]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도, 질문에 대답하는 것처럼, [−00]인 것이 명확할 때는 「でいる」가 생략되어 「しない」만으로 된다. 여기에서, 다음 밑줄친 부분과 같이 일견 미래처럼 보이는 현재지향의 형태가 생긴다.

[22] 「今、お酒飲んで(いる)?」

[−00] いや、飲まない(でいる)。 (しないでいる否定)

[44] 「うちの子、帽子かぶって(いる)?」

[−00] いや、かぶらない(でいる)。 (しないでいる否定)

또, 「しないでいる否定」에서는, 생략에 의한 「しない」만의 형태가 높임말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는 [−66][−60]도 [−00]도 「しません」(いいえ、飲みませんでした/かぶりません)이 된다. 이것도 일견 미래처럼 보이는 과거지향, 현재지향의 형태이다.

24.3 「しませんでした」가 생략에 의해 「しません」으로

[6◎] きのうお酒飲みましたか? (이제 술 마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표준적인 부정회답은

[−6◎] いいえ、飲みませんでした。 (아니오, 마시지 않았습니다.)

일 것이다. 그런데 회답에서는 언급관계(言及關係)의 기준이 이미 명료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생략해 버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생략하기 쉬운 「でした」가 생략되어, 매우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답하게 된다.

[‐6⑩] いいえ、飲みません。

물론, 「飲みません」에 원래 과거를 나타내는 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문맥으로부터 독립한 다음과 같은 문장이 틀린 문장이 되는 것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 私はきのうお酒を飲みません。

* 彼女はおととい着物を着ません。

「しませんでした」의 「でした」가 생략되어 「しません」이 되고, 일견 미래로 보이는 과거지향의 형태가 생기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견 현재로 보이는 과거지향의 형태도 생긴다.

[64] そのときお酒を飲んでいましたか? (그 때 술을 마셨습니까?)

[‐64] いいえ、飲んでいません(でした)。 (아니오,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상, 이렇게 해서 일견 비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라도, 그것을 언어표현에서 당연히 붙어 다니는 생략의 결과 생긴 것으로 파악하는 것에 의해, 그 배후에 논리성이 일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는, 종종 문제가 되는 「ご飯食べた?」에 대한 부정 회답에 관해, 이상과 같은 생각으로 다루면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해 나타내 보도록 한다.

제25장

「ご飯食べた?」에 대한 부정회답

25.1 3가지 부정회답

「ご飯食べた?」라는 질문에 대한 부정회답에는 3가지의 가능성성이 있다.

- [C] 「いや、食べなかつた。」
- [D] 「いや、食べて(い)ない。」
- [E] 「いや、食べない。」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ご飯食べた?」는 [4◎]나 [6◎], 혹은 [43]이나 [63]의 언급관계(言及關係)에서의 질문이다. [4◎][43]이라면, 밥을 먹은 결과의 상태(만복 상태)가 남아있다고 상정될 때의 질문이고, [6◎][63]이라면, 그런 결과가 이미 남아있지 않다고 상정될 때의 질문이다. ([5◎][53]은 결과의 상태가 완료될 때의 질문이기 때문에, 「着る」와 같이, 결과의 상태<착의(着衣) 상태>의 완료<탈의(脱衣)>가 언제 일어나는지가 명료한 동사에서는 가능하지만, 「食べる」와 같은 동사에서는 가능성이 낮다. 만복상태가 완료하는 시점[50]이 언제인가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4◎][6◎]의 질문에 대한 회답이라면, 그러한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대답하면 되므로, [-4◎][-6◎](「いや、食べなかつた。」)라고 하면 될 것이다. [43][63]의 질문에 대한 회답이라면, 그 이벤트가 완료되지 않은 것을 대답하면 되는 것이므로, [-43][-63](「いや、食べなかつた」)라고 하면 될 것이다. 즉, 먹었다는 사실의 유무를 묻고 있는 경우의 회답은, [C] 「いや、食べなかつた。」이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4◎][43]의 질문에서는, 질문의 의도로서는, 먹었다는 사실의 유무보다도, 먹은 결과, 현재만복상태인가 어떤가를 묻는 것에 비중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는 현재의 배의 상태에 관심이 있다. 발화의도로서는 [44] 「ご飯食べて(い)る?」이다. 이것에 대한 회답은, 현재의 배의 상태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대답하는 것보다도, 「먹지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생긴 「현재의 공복의 상태」에 대해서 대답하는 편이 질문의 의도에 합치하는 것이다. [C] 「いや、食べなかつた」보다, [-44][D] 「いや、食べて(い)ない」가 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또, [D]의 「～ていない」 형식은, 이미 일어났다고 예상되는 이벤트가 실은 아직 일어나 있지 않다는 것을 표명하는 뉘앙스를 가지는 것에서(23.3 ①), 그 이벤트가 늦어져 이제부터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뉘앙스를 품고 있다.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44][D] 「いや、食べて(い)ない」는, [44] 「食べている<만복상태>」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배가 고픈 상태임을 암시하고, 따라서, 이제부터 먹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뉘앙스에 품고 있다.)

[43]의 질문이라 하더라도, 질문 의도를 고려한다면, [-44]로 대답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그리면, [E] 「いや、食べない。」는 어떤 것일까?

이것은, 24. 2에서 본 대로, 생략에 의해 생긴 형태이다. 무엇이 생략되었는가에 의해 뉘앙스가 바뀐다.

[−00] いや、食べない(でいる)。

이라면, 이제부터 먹을 생각이 있는 것 같으므로, [D]와 비슷하고,

[−60] いや、食べない(でいた)。

이라면, 그뒤에 먹을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 과거의 부정이고,

[−66] いや、食べない(でいる)。

이라면, 단순히 과거의 부정이다.

이, 뒤의 두 가지, [−60][−66]는 [C]와 비슷하다.

이와 같이, [E] 「いや、食べない」는 「ご飯食べた?」에 대한 회답으로서는, 언급관계가 기본적으로 3개 있어, 해석의 가능성성이 많은 형식이라 말할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ご飯食べた?」에 대한 부정 회답은 이렇게 된다.

과거의 일로서 대답할 때는,

[C] 「いや、食べなかつた。」혹은 [E] 「いや、食べない。」

현재의 배의 상태로서 대답할 때는,

[D] 「いや、食べて(い)ない。」혹은 [E] 「いや、食べない。」

즉, [C][D]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가가 정해져 있는데, [E]는 어느쪽에도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인 것이다.

또, 각각은 그대로 정중한 형태가 된다.

「ご飯食べましたか?」

[C] 「いいえ、食べませんでした。」

[D] 「いいえ、食べて(い)ません。」

[E] 「いいえ、食べません。」

「ある」의 부정은 「あらない」가 아닌가? → p. 189

「ではありません」과 「ではないです」는 어떤 관계? → p. 199

「ない」란, 역시 3종류인가? → p. 202

이중부정으로 하면, 왜 불완전한 긍정이 되는가? → p. 204

「これは私が買ったんじゃない」란, 무엇을 부정하나? → p. 208

「完全に分からぬ」라는 것은, 조금은 안다는 것인가? → p. 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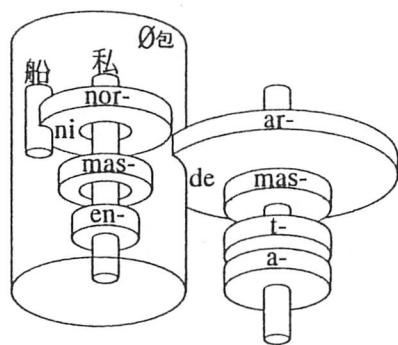
「全員来なかつた」라는 것은, 온 사람도 있다는 것인가? → p. 219

「彼さえ」와 「彼しか」는 어떻게 다른가? → p.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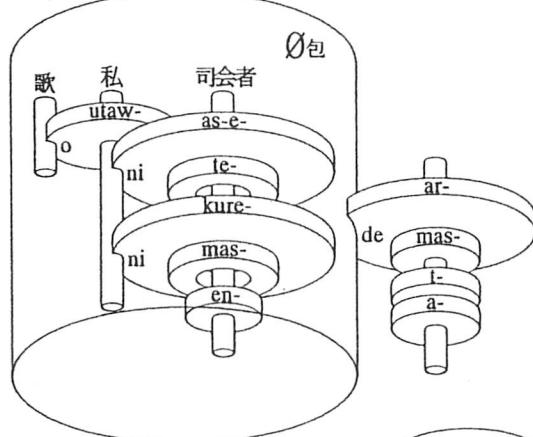
「行くことはない」란, 「行く必要がない」? → p. 227

「～ませんでした」(過去の丁寧な否定)の構造

船には乗ませんでした。



歌わせてくれませんでした。



「ませんでした」基

